

ONYUL

율촌 · 온율 공익활동보고서

2017 YULCHON ONYUL
PRO BONO REPORT

20 **17**



사랑

나눔

동행

나눔

Contents

- 02 이사장 인사말, 공익위원장 인사말
- 04 온율의 비전과 미션, 온율 조직
- 06 법률지식의 사회환원
- 14 후진양성과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 기여
- 22 나눔의 가치실현
- 28 공익활동지표
- 30 활동후원
- 32 2017년 주요 동정

O N Y U L

따뜻한 울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의 '온율(溫律)'은
법무법인 울촌이 2014년 3월 3일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온율'은 법률가들이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취약 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부 및 봉사활동
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공익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대,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을 맞이하여 네 번째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로 인사드립니다.

온율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감에 있어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개개인의 처지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온율은 법률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지식과 쌓아온 경험은 법제도 개선, 법률 지식 나눔, 후학 양성 및 다른 국가와의 교류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온율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공익법제 개선, 법이론 연구, 법률 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등의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온율은 밀알 모임을 통하여 소외되고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의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배광열, 전규해 두 분의 변호사가 공익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온율에 합류하였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익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걸어오면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율의 가치에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법률이라는 온율의 이름에 맞게 소외된 구석구석 법의 빛이 퍼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의 지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온율의 서툰지만 우직한 발걸음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소순무**

공익위원장 인사말



율촌은 창립 시부터 고객에겐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되 공존과 상생을 위한 나눔의 가치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율촌은 온정에 기초한 시혜적인 자선활동에 한정되기보다는, 율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소홀했던,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증가시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율촌은 그간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공익위원장 **윤세리**

나눔

사랑

동행



O N Y U L

따뜻한 울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의 '온율(溫律)'은 법무법인(유) 울촌이 공익 사단법인입니다.

'온율'은 울촌 소속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찾아내고, 실질과 맞지 않은 법제도 개선, 연구에 참여하는 등 전문적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종 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울촌과 온율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LSR) 수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법'으로 만들어 가는 '함께 하는 세상'

온율의 비전과 미션

온율은 법률가들의 법률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적절하고 충분히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익 단체와 법률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한 공공 가치 실현
- 공익 법제의 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 지적 장애인, 고령인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정착 지원
- 후학 양성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씨드스쿨 후원, 장학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사단법인 온율 조직

총 회원수 : 231명

이사회 이사장 : 소순무 / 이사 : 강석훈, 강희철, 김세연, 박은수, 우창록, 윤세리, 장영기

감 사 : 송상우

사무국 : 박은수, 배광열, 임희동, 전규해, 황지경

분야별 조직 : 공익법제지원팀, 성년후견지원팀, 글로벌사회공헌지원팀, 교육지원팀, 법률문화콘텐츠팀, 범죄피해자지원팀, 봉사활동지원팀, 운영지원팀



HARMONY

온유은 법률가들의 전문 법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함께 노력합니다.

법률지식의
사회환원

Onyul Support

성년후견제도 지원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후견인의 보호를 통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맞게 일상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울촌과 온울은 성년후견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 되어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연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법인후견인 활동(2018. 3. 15. 기준 누계 14건, 후견인 11건, 후견감독인 3건)
 성년후견 법제 개선, 연구(매년 세미나 개최, 국제 학술대회 후원)
 발달장애인, 치매·고령자 공공후견 참여 및 권익옹호 지원

INTERVIEW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성년후견지원센터 배광열 변호사 인터뷰

온울은 설립할 때부터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며, 자타공인 성년후견분야 전문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울은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후견인 활동, 후견제도 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법률가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입니다. 온울이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이전부터 온울은 발달장애인, 치매환자와 같은 분들이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로서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온울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매년 성년후견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온울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온울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내역

연번	날짜	주제
1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
2	2014년 7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
3	2015년 7월 1일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
4	2016년 7월 1일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5	2017년 12월 14일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아가 실제로 후견인, 후견감독인으로도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온울은 2015년 가을 서울가정법원의 전문후견인 후보자로 지정된 후, 2년간 총 13건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10건) 또는 후견감독인(3건)으로 선임되어 피후견인의 인권보호 및 복리를 위해 성실히 후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들은 치매, 뇌사고 등으로 인지기능이 부족한 고령자들로, 피후견인 가족들 사이의 극심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간의 사이를 고려하면서 피후견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후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큼니다.

온울이 수행하는 후견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남편은 치매, 부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부부에 대한 후견 사건입니다.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 주위 사람들이 이 부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려는 도중, 온울이 부부 모두에 대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 당시 치매에 걸린 피후견인이 원래 거주하시던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후견인이 자주 자취를 감춰 후견인으로서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후견인을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원시키면 후견인으로서의 편했겠지만,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의 성년후견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부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면서 후견은 종료되었으나,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들께서 지속적으로 온울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교류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성년후견제도가 다소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후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과 함께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를 개최하여 독일과 한국의 제도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에 열릴 대법원, 법무부, 한국후견협회 공동주최의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울과 울촌의 구성원들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온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법률복지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공공후견제도"는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온울 성년후견지원센터는 앞으로 후견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공후견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온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경험을 살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이 공공후견인들이 후견활동으로 겪을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공공후견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제 개선

온울은 공익활동 및 기부제도 장려를 위한 법제도를 비롯하여 공익 추구를 위한 사회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하여 단체들이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파악, 개선방안을 찾는 등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익법인 법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미나 개최

2017년 4월 13일 공익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 전반에 관하여 재검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율촌 이강민 변호사는 본 세미나에서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익법인 세제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제 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NPO) 정책 지원 연구

온울은 2017년 7월 18일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와 'NPO 정책 지원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율촌과 온울은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분류체계 코드 개발 및 공익법인 공시정책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연구하여, 2018년 1월 30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사회학회 '한국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연구' 참여

율촌과 온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입법의 영향 및 우리 사회의 반응과 더불어 본 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위 연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율촌 임형주 변호사는 본 연구에 참여하여 법조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온울은 2017년 8월 한국피해자학회에 '유럽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활동과 아시아지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결성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 핸드북 발간

울촌은 KB 국민은행과 함께 이주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7년 10월 10일 '이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 핸드북'을 몽골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로 발간하였습니다. 본 핸드북의 원고 초안 작성에는 강희철, 박재우, 윤용희, 이태은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유강 패러리걸을 비롯한 울촌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번역 감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울촌은 앞으로도 고객사와 함께 울촌과 고객사가 각각 갖고 있는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몽골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온울 생활법률지원센터 운영

2015년 4월 27일 사회 취약계층에게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하고자 온울 산하에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생활법률지원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법에 의한 보호를 통한 공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로펌 공익네트워크 참여

울촌 · 온울은 2017년 11월 20일 제2회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 세미나에 준비팀으로 세미나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촌은 타 로펌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후진양성과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 기여

ALWAYS

윤촌과 온율은 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의 후진양성과 올바른 법률문화가 확산될수 있도록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울촌 신흥지역연구센터

2015년, 울촌과 온울은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확대, 상호 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에 울촌 신흥지역 연구센터(Yulchon - 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촌과 온울은 CSV 영역 확장을 목표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

- 제3기 Country Report 연구팀 구성 및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대상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에콰도르
- 제3기 Country Report 연구팀 환송회 개최
- 동남아 유학생 대상 방한용품 지원



INTERVIEW



제3기 Country Report 연구원
Manjula Pradeep, 스리랑카

간단한 자기소개 및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 Planning Service,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Manjula Pradeep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우연히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으로 개설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개발협력정책프로그램(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gram, 'DCPP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국에서 근무하면서 민관합작투자사업 등 경제개발정책에 관심이 늘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 관련 제도를 배우고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DCPP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울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울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Country Report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연구팀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Country Report 연구는 저와 같이 DCPP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학 온 동남아시아 국가 공무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생, 지도교수님 그리고 해당 국가 관련 업무를 하시는 울촌 소속 변호사

님이 한 팀이 되어 1년여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 해는 총 6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에콰도르, 스리랑카)이 연구팀으로 꾸려져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정동수 고문님을 비롯하여 울촌 지역전문가팀 소속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연구보고서 리뷰를 해주셔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나요?

사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DCPD 프로그램 커리큘럼 자체가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바빴습니다. 하지만 연구 주제부터 함께 정하여 울촌의 변호사님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실무적인 관점과 다양한 사례를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3기 Country Report 연구원으로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나요?

2017년도 초에 울촌 구성원분들이 겨울 점퍼나 니트 등 방한용품을 모아 전달하여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비롯한 신흥지역국가에서 온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한국의 매서운 겨울 추위가 무척 적응하기 어려웠고, 특히 본국에서는 필요 없는 겨울 옷을 구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고충을 배려해주셔서 별탈 없이 한국의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학생들을 통해 배운 한국의 법과 경제 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Planning Service,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스리랑카에 적합한 경제개발 정책을 고안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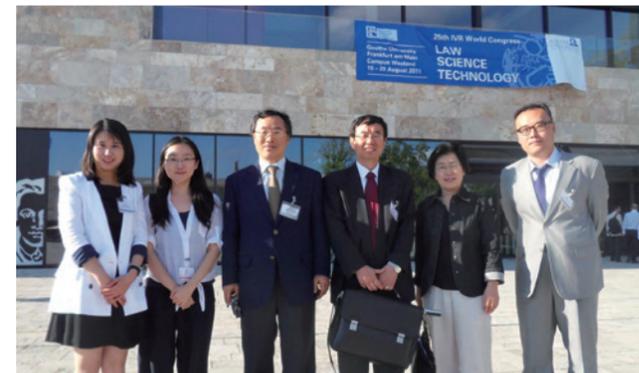
울촌 법이론연구센터

울촌 법이론연구센터는 울촌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여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하에 개소한 기관입니다. 울촌 법이론연구센터는 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론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세정의 이론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울촌 법이론연구센터는 2017년 12월 11일 그 동안 진행해온 조세정의 이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정의 이론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연구에는 울촌 조세그룹 강석훈 변호사와 김근재 변호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조세사건의 실무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조세정의에 관한 철학적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2017년 6월 17일 : '한국 법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2017년 7월 17일 : '제27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자 대회' 참여



기초법 연구실 공부 모임 지원

로마법 강독회(최병조 교수), 한국법제사강독회(정공식 교수), 법철학교실(김도균 교수)



콜로키움 개최

울촌 법이론연구센터는 매월 기초법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학내 콜로키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3일에 개최된 '제7회 콜로키움'에는 울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 '실정법의 관점에서 본 조세정의'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촌은 실무가로서의 관점을 더하여 기초법 연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울촌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내역

주제	날짜	연사
사적 자치 v. 국가 후견주의 - 조항 해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2017. 3. 30	최병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 Richard Posner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의 사법행태론에 대한 소개	2017. 4. 25	박종현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로널드 드워킨 '법복을 입은 정의'와 법명제의 진리조건	2017. 6. 11	이민열 박사 (변호사·법학박사)
법학방법론, 특히 범형성의 체계구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7. 9. 29	이계일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정법의 관점에서 본 조세정의	2017. 11. 3	소순무 변호사 법무법인(유) 울촌
왜 자연법인가? - 자연법의 회귀	2017. 11. 30	진교훈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철학)
법률가처럼 사고한다는 것 - Frederick Schauer 저, Thinking Like a Lawyer에 대한 해제	2017. 12. 8	김건우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올바른 법문화 확산 _ 법률 교육 지원



중·고등학생 및 교사 대상 법률 교육 지원

울촌과 온울은 중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 덕목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2017년 5월 1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사, 학생 대상 법률교육”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울촌 변호사들은 덕원여고, 서울세종고, 성수공고 등에서 ‘말과 법 :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와 같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시범강의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학교 측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더 완성도 높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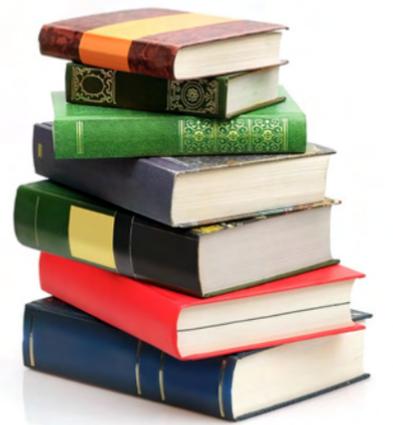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학교 코어사업단이 추진하는 ‘젊은 세대들의 인문역량 강화’ 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연 2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촌과 온울은 대학생들이 타인과 공감하며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역예정간부 법률 교육 지원

울촌과 온울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하여 사기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역예정군인이 전역 후 쉽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TOGETHER

행복은 나눌수록 뜨거워지고 더할수록 커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참여할수록 희망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음이 나눔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나눔의
가치실현



씨드스쿨 프로그램 참여 및 후원

울춘과 온울은 2009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씨드스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울춘 구성원들은 씨드스쿨의 핵심가치인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에 공감하여 씨드스쿨 '배움이 있는 식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는 등 대학생 봉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씨드스쿨은 방과후 멘토링 학교로서,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멘토들이 취약계층 청소년들과의 1:1 결연 멘토링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울춘
임정준 고문

“ 저는 대학생 봉사자들의 씨드스쿨 참여 계기가 궁금하여 배움이 있는 식사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게 ‘처음에는 한 학기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3년째예요’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이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배움이 있는 식사 자리가 이처럼 매사를 긍정적이고 지혜롭게 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능동적으로 보는 관점은 T(멘토)를 통하여 SEED(멘티)들에게 전달되고, 또, 이 SEED(멘티)들이 T(멘토)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 실천

울춘은 장애인 고용을 직접 실천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춘은 201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정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모집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법무법인으로는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4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울춘에서는 10명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울춘의 한가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Other Sharing

봉사동아리 밀알

울촌 봉사모임 밀알은 2001년 1월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현재 변호사 및 전무가 40명, 직원 13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공동체 '은혜동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매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인 '요술램프'를 방문하여 배식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후원

울촌은 2013년부터 난민과 다국적 기업 등 국제적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 공익변호사 1인의 연봉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

울촌과 온울은 2017년 8월 16일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2년간 난민인권센터에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사랑의 손잡기 활동' 참여

온울은 2015년부터 범죄피해청소년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청소년(2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참여

울촌은 2015년부터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촌이 지원한 참가비는 시각장애인단체에 기부되어 시각장애인 지원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문화꿈나무 미온프로젝트 후원

울촌과 온울은 네팔 지진 피해 2주년을 맞아 네팔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더불어 음악 교육이 전무한 네팔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미온 프로젝트를 후원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는 울촌 윤윤희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해외 활동 중인 한국청년을 위한 도서 기증 사업 진행

2017년 9월 울촌은 해외 활동중인 한국 청년들을 위하여 울촌 구성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200여 권을 대우세계경영연구회를 통하여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주관 '2017 아동학대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 바자회' 참여

2017년 11월 울촌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2017 아동학대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 바자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울촌 구성원들은 골프채, 와인 등 본인의 애장품을 아낌없이 기증하였습니다.

연탄기부 및 나눔 봉사 참여

2017년 11월 25일 울촌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연탄을 기부하고 독거 노인분들께 배달하는 '2017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익활동지표

4,158,567,000 원

공익활동 현금 환산액

총 공익활동 시간

6,509.5 시간

221 명

공익활동 참여
국내 변호사

79.5 %

공익활동 참여 비율
(총 278명 중 221명)

29.5 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활동시간

20 시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기준시간

활동후원

온울의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을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부금은 온울의 활동 및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 총 정기 기부 및 수익금

59,250,000 원

2017 총 특별기부액

28,206,770 원



217 명

2017 정기 회원 기부자

33 명

2017 특별 기부자

2017년 주요 동정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분 수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법인 설립 때부터 소속 구성원 모두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 법제 및 공익법인법제 개선, 비영리단체(NPO) 정책 연구,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를 통한 기초법 연구와 후학양성 등 공익문화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공익사단법인 '온울'을 설립해 성년후견법제 연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개발도상국의 법제 개선 연구 지원 등 공익 법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 송무대상 수상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님에게 1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끌어낸 법무법인(유) 율촌은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언론보도

율촌·온울, 정춘숙 의원과 국회서 '성년후견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 (12.12)

법무법인 율촌, '공익법인 법제 세미나' 13일 개최
이데일리 (4.11)

"누구나 늙고 병들고... '성년후견인' 남 일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5.2)

변호사가 직접 고교 방문해 학생·교사에 법률교육
연합뉴스 (5.11)

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공익소송 지원 업무협약
법률신문 (8.18)

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효과있다'
'청탁 줄었다'도 53% - 서울대서 시행 1년 학술대회
연합뉴스 (9.20)

'율촌,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신흥지역연구발표회'
머니투데이 (9.22)

공익로펌네트워크, 'CSR과 법률가의 역할' 주제 심포지엄 개최
세계일보 (11.22)

법무법인 율촌, 홀몸어르신에 '연탄 배달' 봉사
법률신문 (12.6)

법무법인 율촌, '조세정의 이론 연구' 발표회
세계일보 (12.12)

'KB국민은행,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생활법률 책자 출간'
연합뉴스 (12.13)

방송

KBS 추적60분 "나를 지켜주세요 - 성년후견제도의 함정"
소순무, 배광열 인터뷰 (6.14)

MTN 더리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성년후견제도,
사법복지의 한 축으로 거듭나길" (8.16)